

용서와 이해

尹 在 天 (중앙대 문리과대학 교수)



- ▲중앙대 대학원 국문과 졸업
- ▲한국수필문학회 회장
- ▲국제펜클럽·한국신문예협회 이사
- ▲전국대학신문 主幹敎授 협회 회장
- ▲중앙대 문리과대학 국문과 교수(현)
- ▲저서 : 『國文學辭典』, 『新文章作法』, 『世界名隨筆의 理解』, 『오즈음 사람들』, 『처음과 끝 그리고 그 사이』외 다수.

최근 몇 해동안 우리 생활 주변은 심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 잘못된 응징 및 새로운 모색 등 분명히 많은 변화가 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어떤 의미에서든 바람직한 일이며 좀더 나아지기 위한 발버둥이고 가슴에 들끓던 많은 일들에 대한 분출이나 나쁘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러나 어떤 일에도 한계 범위가 있는 것이고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는 법이다. 누구에게나 잘못은 있을 수 있고 또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인간이기에 용서해야할 범위도 덮어두고 서로 잇기를 다짐해야 할 일도 있다. 한계를 지나쳤을 경우엔 오히려 이제까지 쌓아놓은 업적을 퇴색시키거나 무너버릴 우려도 있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치유만으로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정치발전을 이룩했다고 본다.

지금, 우리 모두는 민족적 양심으로 돌아가 스스로의 허물을 씻고 더럽혀진 우리 영혼을 말끔히 치유해야 한다. 우리의 이 시련이 가져와야 할 가장 큰 의미는 다시는 이런 오욕의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며, 그런 위정자가 출현할 현실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하늘을 우러러 저마다 할 말은 있지만 부끄러운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니 이젠 저마다의 양심으로 돌아가 치욕의 나날이 남긴 때를 말끔히 씻어내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 결국 도덕과 윤리의 문란만 가져올 뿐이다. 우리 사회는 분명 많은 것을 잃고 있다. 온통 흠 많은 역사의 아픈 상처를 남기고 있을 뿐이다.

우리와는 먼 야만족들의 이야기로만 알았던 인신매매(人身賣買), 부녀자 폭행 등 과렴치법들의 난동을 비롯

정보화사회 칼럼

하여 노사분규로 인한 사업체 붕괴(崩壞), 스승과 제자 간의 험악한 린치 등 실로 입에 담았다는 자체가 역겨운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고 있다.

진정,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경제적 부(富)보다 도덕적 안정이고 윤리적 긴밀함이다. 물질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는 만큼 진정한 행복의 바탕을 우리의 가슴과 정신으로 이룩해야 한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며 살 수밖에 없다. 그 만족이란 충족을 말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적응을 위한 그것이고 또한 그것에서 비롯된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개인의 행복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모든 것이 행복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그 바탕이 바로 도덕의 범주인 것이다. 작게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서부터 좀더 원대한 위치로 발전할 바탕을 마련하는 일까지 모든 것은 개인들의 마음가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또 그것이 구성원 모두의 합심된 노력일 때 그 단체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최고의 규범은 양심이다』라는 말이 있다. 가장 인간적인 면모로 생활하는 것이 최선의 삶을 유지하는 방법임을 이르는 말이다.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인간 삶의 모습이기도 하다. 흔히들 이성(理性)에 의해 삶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것을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인간의 진실한 삶은 정(情)을 통해 이룩되는 것이고, 그것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찰(明察)해야 할 것이다.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들 나름의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들은 땅에 금을 그어놓고 그 주위를 맴돌며 나름대로의 놀이를 한다. 그러다 그들 중에 어느 아이가 금을 밟거나 케도를 이탈했을 때 그에게 제재를 가한다. 규칙을 어긴 사람은 스스로 당혹해 하면서 그 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 받아야 하는 모든 고통을 스스로 감내한다.

만약, 그들 중에 어느 한 명이라도 그 규칙을 아무렇지도 않은 것으로 받아들인다든지 아니면 제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엔 모두들 관심밖의 놀이가 되고 흥미도 반감하게 된다. 지나치게 까다로운 것도 문제이지만 반대의 경우도 문제는 다분히 있을 수밖에 없다.

법은 마치 아이들이 그어놓은 금과 같은 것이다. 우리

사회가 이루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이들이 저마다의 삶에 보람을 느끼고 노력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며, 모든 규제조치 또한 그를 위한 일환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일이다.

흔히들 요즘의 세태를 인간성 상실에 두고 나름대로의 평가를 내린다. 그것은 믿음의 상실을 말하기도 한다. 한 인간이 자기 삶의 주체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의 책임을 수행해 나가는 존재로서의 자기 부각이 소중한 때인 만큼 자기 실현과 동시에 사회 목적의 실현에도 주력해야 한다.

삶이란 생물학적 생명 현상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제자를 가르친 스승의 보람은 자기 이익보다는 제자들의 발전에서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것이며, 국가의 역사를 맡은 위정자의 보람은 국민의 평화에서 얻어진 것일 때 그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무엇이 최선인가 하는 문제는 항상 결과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결과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한 연후에 맺어지는 것인 만큼 우리에게 있어 가장 먼저 행해야 할 임무는 우리가 왜 살며, 누구를 위해 사는가 하는 목적의식이 뚜렷이 성립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도덕재무장이며, 윤리관의 성립인 것이다.

한 위정자의 붕괴로 인해 극도로 문란해진 이 시대 현실이 다시 재정립되고 삶의 가치가 저마다의 가슴에서 발하게 될 때 우리 시대는 믿음의 광장, 영원한 삶의 뜰이 될 것임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지난날의 모든 아픔은 밝아온 기사년 새해의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이며, 갈등은 모든 사람들의 자리에서 일치된 정신으로 부활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 시대의 아픔이 진정한 부활의 의미로 재생되기를 빌며, 가장 바람직한 사랑이란 희생과 헌신 그리고 용서와 이해속에 있음을 가슴에 새겨 본다. ♣